

신소설에 나타난 여성인물의 광기

서연주*

차례

1. 신소설과 여성인물의 광기
2. 어머니의 텅 빈 주체와 우울을 승화한 딸들의 성장
3. 히스테리적 주체의 정체성 찾기
4. 신소설과 한국적 근대의 불협화음

〈국문초록〉

본고는 신소설에 등장하는 여성인물의 광기에 주목하여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신소설에서 보통 남성인물들의 노정이란 대체로 계몽의 근대를 향해 나가는 출사로 전제되지만 그에 반해 구체적 서사가 빈약하거나 탈각되어 있는 양상으로 허랑방탕한 유람의 성격이 짙다. 이 가운데 신소설의 주인공은 효와 열이란 구세대적 모티브를 내재한 가정서사를 이끌고 있는 여성인물들이 주동인물로 존재하게 된다.

신소설에 자주 등장하는 남성인물들의 유람모티브는 남성의 계몽에 대한 강박증으로 발현된다. 가정을 완전무결한 질서와 안정의 장소로 이념화하는 신소설의 지향성 가운데 가정이 파괴된 채 집으로 돌아온 여성인물의 경우는 망상 증세를 띠게 된다. 정치적 야욕을 가지고 있었던 작가

* 국민대 교양대학 국어교양과 조교수

이인직의 경우 「혈의누」, 「은세계」에서 구태 정치세력에 저항한 남성인물을 이성적인 숭고한 영웅형으로, 이에 반해 시대적 상황과 마찰하는 내면의 표상으로 여성인물의 광기를 등장시킨다. 자신을 표현할 언어가, 언명이 없었던 어머니들의 광기(망상)는 딸들(옥련, 옥순)에게 학업 성취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할 또 다른 계기를 만들어 주며 근대화의 무대에 여성이 등장할 수 있는 배후 요인으로 기능하게 되는 것이다.

또 한편 신소설은 남성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헌신하는 것을 마치 운명적인 것처럼 인식해 왔던 기존의 여성관에 새로운 인간의 모습을 발견하는데 일정부분 기능하였다고 볼 수 있다. 최찬식의 「안의성」, 「능라도」의 경우 미천한 신분이었지만 신교육을 통해 자기성찰 능력을 갖춘 여성인물이 자유연애에 의해 남성과 맺어지나 결국 가정 내 불화로 출분하여 히스테리적 증세를 겪게 된다.

이는 여성을 남성에 대한 타자가 아닌 실존적인 인간으로 본다면, 광기로 규정된 여성인물의 행동을 결코 그들에게 내재되어 있는 동물성이 발현된 것으로만 규정할 수 없다. 오히려 여성의 광기는 억압적인 권력체제로부터 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보호하기 위해 행한 자기 방어적인 행동으로, 그리고 그러한 체제에 공격을 가하는 저항의 몸짓으로 해석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여성의 광기는 여성에게 적대적인 가부장제 사회에서 자신의 존재가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과연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 해답을 찾아가는 여정의 기폭제로 볼 수 있겠다. 즉 신소설 속 여성인물들의 광기는 이념과 풍속, 체험과 관념, 욕망과 명분 사이의 괴리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불협화음의 표상인 것이다.

핵심어 : 신소설, 여성인물, 광기, 망상, 히스테리, 강박증, 정체성

1. 신소설과 여성인물의 광기

대부분의 신소설은 가정에서 박해받는 여성의 시련과 고난을 서사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 그 가운데 많은 경우 서사는 여성인물이 화목한 가정으로부터 축출되거나 전통적 도덕에 기반한 가족이 해체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 것으로부터 발단한다. 이러한 계기에 의해 길 위로 출분된 여성들이 그 종국에 조우하게 되는 것은 대체로 죽음이나 정조 상실의 위기이다. 이것은 근대 계몽기 당시의 사회적 혼란을 나타내는 표상으로 근대라는 새로운 범주의 체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인들에게 주어진 삶의 양식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혼란과 긴밀성을 띤다.

지금껏 신소설의 여성상에 주목한 연구는 꾸준히 계속되어 왔다. 당대 사회상의 변화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신소설의 여성에 대한 연구는 공통적인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권영민이 지적했듯 지금까지 신소설의 여성인물에 대한 연구에서는 부분적 발화내용에 드러난 작가의 계몽적·근대적 의식과 작품의 서사를 통해 보여지는 전근대적·구소설적 성격은 서로 용해될 수 없는 것으로 취급되어 왔던 경향¹⁾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박혜경은 “신소설의 실질적인 서사를 이끄는 봉건적인 가족윤리나 여성들에게 강요된 정절의 윤리는 풍속의 세계에서 굳건히 보존”되었기에 “신교육에의 요구나 개인적 연애감정의 발견 등과 같은 근대성의 이념이 풍속의 세계에 가한 일정한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신소설이 어찌 보면 근대정신의 가장 핵심이라고 해야 할 자의식의 혼란과 고통을 모르는 계몽적 순진성의 세계 안에 머물러”²⁾있을 수 있었다고 짚고 있다. 이는 일견 타당한 말이다. 때문에 “자의식의 혼란과 고통을 모르는 계몽적 순진성”을 상기해 볼 때 신소설에 종종 등장하는 여성인물들의 광기는 사뭇 의미심장하다.

보통 광기란 주제는 보통 세기말의 시대적 불안을 투영한다. 여기에는

1) 권영민, 『한국현대문학사』 1, 민음사, 2001 참조.

2) 박혜경, 「신소설에 나타난 이념과 풍속의 거리」, 『한국언어문학』 55, 2005, 392쪽.

단순하게 개인의 내면의 공포를 보여주는 심리적인 이상 현상뿐만 아니라, 사회적 병리학의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 그간 보통 여성인물들의 광기는 남성이 권력의 핵심에 자리잡고 있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자신의 권력 기반을 유지하고 강화시키기 위해 여성을 타자화시키는 계획의 맥락으로 이야기되어 왔다. 남성이 여성으로부터 느끼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여성을 열등한 존재로 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천사와 요부라는 상반된 이미지를 구상하여 여성을 억압시키는데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남성은 그들이 만들어 놓은 성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여성을 천사로 묘사한 반면, 이것을 거부하거나 소홀하게 수행하는 여성을 괴물처럼 묘사하였는데, 그 이유는 남성들이 이러한 여성들을 자신들이 구축한 사회의 안정을 파괴하는 위험한 존재로 느꼈기 때문이다. 19세기에 서양에서 활발하게 진행된 광기에 대한 연구 역시 남성들이 여성들을 타자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계획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이성적인 행동과 광적인 행동을 구분 짓는 잣대가 인간의 존재론적 토대에 근거한 것이기보다는 ‘권력을 가진 이’들에 의해 형성된 주관적이며 편파적인 것이기 때문이며, 실제로 광기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신소설을 다루는 연구에서 여성인물의 광기에 주목한 연구는 극히 드물다. 전면적으로 광기의 의미에 대해 주목한 논고는 박진영과 권보드래 정도이다. 박진영은 변안소설 <쌍옥루>와 <장한몽>을 분석하며 ‘광기’를 “고소설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즉 근대적인 것이자 수입된—장치의 하나”라고 언명하며 신소설의 경우 주변인물이 광기를 보이는 경우가 없지는 않으나 재회나 재결합에서 쉽게 해결된다는 점에서 그리 전면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평가한다.³⁾ 그러나 신소설에서 여성인물의 광기는 분명 남성인물의 광기와는 다른 세밀한 지점을 가지고 있기에 여성인물의 광기에 대한 재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

3) 박진영, 『1910년대 변안소설과 ‘실패한 연애’의 시대』, 『상허학보』 제15집, 2005. 8.

권보드래의 경우 남성의 광증은 외부와의 충격에 의한 좌절과 공포의 표상이라 명명한다. 1905년대 이후 국가라는 경계를 넘어선 이주와 개척이 남성의 서사로 환원하는 장치로 기능한다면 여성의 광증은 내부적 분열, 좌절과 원한, 극적인 회복과 가정으로의 귀환이란 망명객의 서사로 이해할 수 있다고 정리하고 있다.⁴⁾ 그러나 이 연구는 작품에 대한 섬세한 접근 없이 범박한 정리에 그쳐 여성인물의 광기가 가진 세밀한 분열의 맥락을 읽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아쉬움이 있다.

신소설이 당대 풍습의 사본이며 시대정신을 담아냈던 대중소설이었다는 입지를 고려한다면 당시 서로 모순되는 다양한 이데올로기적인 요소들의 충돌지점을 살피는데 유효하다고 전제할 수 있을 것이다. 광기는 때로 주변 또는 타자의 입장에서 중심과 주체 및 그를 아우르는 전체를 비추어주는 거울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우리는 주변을 통해서 중심을 인식할 수 있고, 둘의 관계를 조명하여 주변성도 온전하게 해명할 수 있다. 나아가서 너무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이는 세계의 이면에 가려진 모순과 부조리의 구조를 해체하여, 건강한 구조 짜기를 시도할 수도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신소설에 등장하는 여성인물의 광기에 주목하여 신소설의 이중적 구조와 그 틈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어머니의 텅 빈 주체와 우울을 승화한 딸들의 성장

앞서 이야기했듯 신소설에는 길 떠나는 여성인물들이 자주 등장한다. 물론 남성인물들의 길 떠남도 자주 등장한다. 그러나 길을 떠나는 목적은 상당히 상이하다. 남성인물들의 노정이란 대체로 계몽의 근대를 향해 나가는 출사로 전제되지만 그 구체적 서사가 빈약하거나 탈각되어 있는 양상으로 허랑방탕한 유람의 성격이 짙다. 이 가운데 신소설의 주 인물은

4) 권보드래, 『신소설의 성(性), 계급, 국가 -여성 주인공에 있어 젠더와 정치성의 문제』, 『여성문학연구』 20, 2008, 7-42쪽.

즉 효와 열이란 구세대적 모티브를 내재한 가정서사를 이끌고 있는 여성 인물들이 주동인물로 존재하게 된다. 때문에 남성이 떠난 가정에서 갈등을 겪고 또 역시 길을 떠나게 되는 여성인물의 그 내면에는 이전 시대와는 변별되는 원인이 따르게 되는 것이다.

조동일은 신소설의 표층적 주제가 개화사상, 신교육사상, 미신타파 등을 다루고 있으나 이면적 주제에서 보면 “고대소설 특히 귀족적 영웅소설의 충실한 연속”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동조하는 김윤식은 일찍이 『혈의누』-『모란봉』-『은세계』를 묶어 ‘준정치소설’이라 칭하였다.⁵⁾ 『은세계』⁶⁾에서는 서사의 맥락을 툭툭 끊으며 등장하는 이른바 최병도타령의 역할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은세계』에서 구세력의 부당함에 저항하다 숭고하게 죽음을 맞이하며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겠다던 최병도의

5) 김윤식, 『개화기소설의 문제점』, 『한국현대소설사연구』, 민음사, 1984.

6) 이인직의 『은세계』는 1908년11월 20일 동문선에서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강릉 대관령에서 마을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최본평 내외가 있다. 어느 날 밤, 최병도는 그 재산을 탐낸 강원도 감찰사에게 억울하게 붙잡혀 모질게 고문을 당한다. 최병도는 부당한 세력에 끝까지 항거하다가 부인과 딸 옥순에게 대관령 제일 높은 봉에 묻혀 이 세상을 지켜보겠다는 유언을 남기고 죽는다. 최씨부인은 옥순과 뱃속의 아이를 생각하여 죽지도 못하고 사내아이 옥남을 낳고는 정신을 놓고 만다. 최병도의 친구였던 김정수는 옥남을 자기 아들보다 더 아끼고 옥순 남매를 정성으로 돌본다. 그러던 중 김정수는 옥순 남매를 데리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다 5년 만에 돌아와서는 아들이 재산을 모두 탕진했다는 것을 알고 술에 의지해 살다가 죽는다.

한편, 옥순남매는 미국에서 돈 한 푼 없이 지내다가 김정수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철도에 떨어져 죽으려 했지만 미국 순사가 그들을 구한다. 이것이 신문 기사에 나고, 이를 본 시애크이 아니스라는 기독교인의 도움으로 옥남은 학문에 낙을 붙여 고향생각을 잊어버린다. 하지만 옥순은 졸업장을 받은 후 어머니 생각이 계속 나 고향에 가려고 걱정한다. 그 때 옥남이 부모에 대한 효도로 더욱 열심히 공부하여 개혁당이 되어서 나라의 사업을 하는 것이 부모에게 효성 하는 것이라 설득하여 옥순은 고향을 잠시 잊고 열심히 공부한다. 옥순 남매는 10여 년 만에 조국으로 돌아와 어머니와 재회하고 최씨부인은 남매를 보고 잃었던 정신을 되찾는다. 옥순, 옥남 남매는 어머니와 아버지 최병도의 명복을 빌고자 절에 갔다가 뜻밖에도 정부의 개혁에 반대하여 일어난 의병들을 만난다. 옥남이 고종의 양위가 지당하며 해산할 것을 권유하지만 도리어 붙잡혀 가고 만다.

혼은 2부에 가서는 통감부의 정책을 지지하는 아들 최옥남에게 영웅소설형 인물의 성격으로 구축된다. 이 항목에서 강조된 점은 『은세계』의 이중 구조인 ‘민중의식, 반봉건의식’과 ‘친일내각의 이념’이 작품 내에서 어떤 수준에서 유기적 통합체를 이루었는가이다. 작가의 직설적 어조로 보이는 최병도 타령의 생경함은 작가 이인직의 준정치적 소설의 성격을 대변해준다. 정치적 야욕을 가지고 있었던 작가 이인직은 구태 정치세력에 저항한 남성인물을 이성적인 숭고한 영웅형으로 그려내고 이에 반해 시대적 상황과 마찰하는 감정의 내면화는 여성인물의 광기로 등장시킨다.

최병도의 딸 옥순의 우울증은 아버지 최병도의 죽음을 목도한 어머니와의 감정적 구조 공유에서 비롯된 것이고 아들 옥남은 유복자이기에 그러한 ‘감정 기억’의 공유가 없는 고로 사회적 대타자인 계몽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어머니를 그리는 옥순과 옥남의 대비된 대화에서 그 차이가 명백히 드러난다. 옥순이 유학중 “이에 옥남아, 자세히 들어보아라. 사람이 귀로 듣는 일과 눈으로 보는 일이 다르니라. 너는 우리 집 일을 귀로 들어 알았거니와, 나는 내 눈으로 낱낱이 보고 아는 일이라. 아버지께서 그렇게 원통히 돌아가시고, 어머니께서는 그 원통한 일로 인연하여 그런 몸쓸 병환 중에 지내시던 일은 원통히 돌아가신 아버지보다 몇 갑절이나 불쌍하신 신세이랴”⁷⁾하며 어머니 생각으로 고향에 가려고 작정한다. 그런 옥순에게 옥남은 철저히 계몽적 주체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여보 누님, 누님이 문명한 나라에 와서 문명한 신학문을 배웠으니 문명한 생각으로 문명한 사업을 하지 아니하면 못습니다. 누님, 누님이 내 말을 좀 자세히 들어보시오. 사람이 부모에게 효성을 하려면 부모 앞에서 부모 봉양만 하고 들어 앉았는 것이 효성이 아니라, 부모의 은혜 받은 이 몸이 나라의 국민의 의무를 지키고 국민의 직분을 다하는 것이 부모에게 효성이랴...(중략)... 이 나라를 붙들고 이 백성을 살리려 하면 정치를 개혁하는 데

7) 이인직, 『은세계』, 『한국신소설선집』 2, 권영민 외 2인 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76쪽.

있는 것이니, 우리는 아무쪼록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을 넓혀서 아무 때든지 개혁당이 되어서 나라의 사업을 하는 것이 부모에게 효성 하는 것이오 여보 누님, 우리가 지금 고국에 돌아가서 어머니를 뵈시고 있더라도 어머니 병환이 나오실 리 없고, 아버지 산소에 가도 아버지가 살아오실 리가 없으니, 아무리 우리 집에 박절한 사정이 있더라도 그 박절한 사정을 돌아보지 말고 국민 동포에게 공익을 위하여 공부를 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일만 잘되면 눈을 못 감고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지하에서 눈을 감을 것이요, 철천지한을 품고 실진까지 되셨던 어머니께서도 한이 풀리시면 나라 위할 도리를 하시오.”

옥순이가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앉아 생각을 하더니 옥남의 말을 옹기여겨 근심을 참고 공부에 착심하여 해외 풍상에 몇 해를 더 지냈던지, 옥순이는 사범학교까지 졸업한 후에 근심을 잊어버리기 위하여 음악학교에서 공부하고, 옥남이는 중학교를 마친 후에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한편으로 사회철학을 깊이 연구하더라.⁸⁾

즉 『은세계』는 표층적 주제로는 최병도타령을 통해 구세력의 척결과 민중의식을, 옥남의 입을 통해 개화사상과 신식교육의 중요성을 다루고 있으나 심층적인 이면적 주제로는 지아비를 잃고 혼절한 최씨부인의 열과 그런 어미를 그리는 옥순의 효가 주요 의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 부분이 바로 대중에게 『은세계』가 사랑받을 수 있었던 지점이라 볼 수 있겠다. 본디 전통적으로 효행담과 열녀담은 구비문학세계에서부터도 가장 각광받던 대중적 모티브⁹⁾였던 것을 주목할 때 대중소설 장르인 신소설의 영리한 선택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이중적 구조의 불일치에서 오는 충돌은 『혈의누』에서도 발견된다. 청일전쟁으로 가정이 풍비박산 난 옥련도 최씨부인은 남편과 딸을 찾아 헤매다가 가정의 회복을 희구하며 빈 집으로 돌아와 정신을 잃고 쓰

8) 이인직, 『은세계』, 앞의 책, 76~78쪽.

9) 김대숙, 『한국설화문학과 여성』, 월인, 2002 참조.

러졌다 일어나 헛것을 보고 혼자 소리를 하며 우울해하다가 자살을 시도하기까지 한다. 그러다 최씨부인은 친정아버지 최주사를 통해 상실한 줄 알았던 딸 옥련이 일본, 미국 등지에서 학업성취를 이루며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하나 남편 김관일의 출가, 즉 유람은 허랑하기 짝이 없다. 아내와 딸의 종적을 찾지 못하자 장인에게 자금을 마련하여 천하 각국을 다니면서 남의 나라 구경도 하고 공부를 하여 나라를 위한 일을 하겠다고 먼 길을 떠나버리는 무책임한 가장의 모습으로 그려진다. 계몽의 구체적인 형태는 없는 외피만 거창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그에 비해 어린 딸 옥련은 출가 이후 일본이나 미국에서 모두 착실하게 제 몫의 삶을 살아내고 있다. 그러나 마음만은 늘 어머니 생각에 애뜻하다. 이는 「은세계」의 옥순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가족의 결핍을 스스로의 노력으로 채우기 위한 부단한 자기 단련에 가깝다. 옥련과 옥순의 우울증적 자아는 근대라는 속도전에 치달아 남성인물들이 잃어버린 것들을 자각하고 또 다른 방식의 계몽을 회구하는 여성인물의 생존 방식이라 볼 수 있다. 결국 옥련, 옥순 두 인물 모두 계몽이데올로기에 휘잡혀 맥락을 잡지 못하는 사회의 이면을 주체적인 우울증적 자아로 견뎌내고 있는 강인한 인물들인 것이다.

사실 남성인물들은 이미 시스템 내에서 가부장의 자리가 공고하기에 부재하더라도 그 자리는 확고하다. 때문에 언제라도, 느닷없이 떠난다 해도 그 정체성 확보와 명분은 상존한다. 그러나 여성인물에게 그 위치 확보란 늘 흔들리는 문제이기에 그 존재 현현이 거주하는 것으로라도 불안감의 구멍을 메워가며 자신을 끊임없이 증명해야 한다. 즉 여성인물이 길을 떠난다는 것은 곧 그 존재의 소멸을 감수해야 하는 모험인 것이다.¹⁰⁾

10) 「혈의누」 도입부 일청전쟁으로 뿔뿔이 흩어진 가족을 찾아 헤매는 옥련모 최씨부인의 모습을 두고 작가의 논평이 개입된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옥련이를 찾으려고 골몰한 정신에, 옥련이보다 열 갑절 스무갑절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잃고도 모르고 옥련이만 부르며 다니다가 목이 쉬고 기운이 탈진하여 산비탈 잔디밭 위에 털썩 주저앉았다가 혼잣말로, “옥련 아버지는 옥련이 찾으려고 저 건너 산 밑으로 가더니 어디까지 갔누.”하며 옥련이를 찾던 마음이

따라서 누구씨 부인이기에 자기 이름과 정체성을 갖지 못했던, 길을 떠나지 못했던 「은세계」 최씨부인은 망상을 만난다. 이는 빈 집으로 돌아와 공허하게 가족의 귀환만을 기다리던 옥련모 역시 마찬가지이다.¹¹⁾

특히 「은세계」에서 최씨부인이 겪고 있는 장애는 정신분열증중 피해망상 장애에 가깝다. 정신분열증은 망상, 환각, 혼란스러운 언어를 특징적으로 나타내는 매우 심각한 정신장애이며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망상이다. 외부세계에 대한 잘못된 추론에 근거한 그릇된 믿음으로서 분명한 반증에도 불구하고 견고하게 지속되는 신념이 바로 망상인 것이다.¹²⁾ 평생을 바쳐 단란하게 꾸려왔던 가정이 풍비박산 났고 자신의 자리를 증명해줄 수 있는 유일한 근거인 자녀를 잃어버린 누구씨 부인들에겐 이 괴로운 현실을 도피할 수 있는 망상이 유일하게 삶을 살아내는 방법이었던 것이다. 유교적 모성이데올로기에 길들여지기를 교육받고 자신의 이름을 가지지 못한 채 누구씨의 부인들로만 존재했던 그녀들은 가부장제의 규율 권력 아래 이렇게 무력하게 무너지고 만다.

홀지에 변하여 옥련 아버지를 기다린다.(밀줄 인용자)¹³⁾

이 부분에서 지아비를 잃은 부인이 딸을 찾는 행위는 자신의 위치를 망각한 태도라는 작가의 가부장적 시선을 엿볼 수 있다.

11) 옥련모의 정신이 흐려지는 양상은 다음과 같은 부분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안방에는 옥련이가 자는 듯하고, 사랑방에는 남편이 있는 듯하다. 옥련이를 부르면 나올듯하고, 남편을 부르면 대답을 할 것 같다. 어젯날 지낸 일은 정녕 꿈이라, 내가 악몽을 꾸었지, 지금은 깨었으니 옥련이를 불러보리라 하고 안방으로 고개를 두르고 옥련아, 옥련아, 부르다가 소름이 죽죽 끼치고 소리가 점점 움츠러진다. 일어서서 안방 문 앞으로 가니, 다리가 덜덜 떨리고 가슴이 두근두근한다. 방문을 왈각 잡아당기니 방 속에서 벼락 치는 소리가 나며 부인은 외마디 소리를 지르고 주저앉았더라.”

12) 정신분열증은 정신증에 속하는 대표적인 장애로서 현실검증력이 손상되어 비현실적인 지각과 비논리적인 사고를 나타내며 혼란스러운 심리상태에 빠져들게 된다. 이러한 증상들로 인해서 일상생활의 적응에 필요한 심리적 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다. 증상이 시작되는 초기에 적절하고 집중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여 만성화되면, 정신분열증은 한 인간을 황폐화시켜 사회에 적응하기 어려운 폐인으로 만들 수 있는 무서운 정신장애이기도 하다. 그중 피해망상은 흔히 정보기관, 권력기관, 단체 또는 특정한 개인이 자신을 감시하거나 미행함 피해를 주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는 것을 일컫는다. 권석만, 『현대 이상심리학』, 학지사, 2013, 355쪽~359쪽 참조.

그러나 딸과의 체험적 연대의식을 기반으로 한 공감적 모성은 신산한 인생체험을 공유했던 기억의 공감과 더불어 작용하여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로 환원할 수 없는 능동적이고 생산적인 자장이 된다. 이 힘은 멀리 분리되어 있지만 또 다른 원동력의 교감으로 딸에게 활력을 준다. 『혈의누』에서는 자살하려는 옥련의 꿈에 나타난 어머니의 모습으로, 『은세계』에서는 어머니에게 효도하기 위해 학업을 위한 마음을 다지는 옥순의 모습에서 상기해 볼 수 있다. 모녀사이의 신체적 성장과 변화의 동일성에서 발현되는 여성 특유의 교감적·육체적 지식의 교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이 어머니와 딸의 친밀감과 연대감은 개인적 체험의 동일성에서 유발되는 바라 할 수 있다. 때문에 자신을 표현할 언어가, 언명이 없었던 어머니들의 광기는 자기 자신에게 상해를 내는 것으로 그 공격적 성격을 안아버리며 한의 세월을 보낸다. 이런 어머니의 모습은 딸들에게 학업 성취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할 또 다른 계기를 만들어 주며 근대화의 무대에 여성이 등장할 수 있는 배후 요인으로 기능하는 것이다.

3. 히스테리적 주체의 정체성 찾기

신소설에 자주 등장하는 남성인물들의 유람모티브는 계몽에 대한 강박증으로 발현된다. 신소설 텍스트 속에서 유람이 도피와 탈출로서 의미화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양상과 연계된다. 남성 인물의 느닷없는 유람-훗김 유학이나 무모한 가출, 현실성이 결여된 유람 등-이 자주 서사화되는 것은 그가 처한 집안의 상황이 탈출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격심한 갈등과 혼란으로 점철되어 있는 것과 관계된다. 주어진 난관을 타개할 적극적 의지와 노력을 보여주는 대신 현실의 탈출구로서 유람을 손쉽게 선택하는 것이다. 물론 대부분의 신소설이 가정에서 박해받는 여성의 시련과 고난을 서사의 핵심으로 삼고 있는 상황에서 외유하고 있는 남성들에 의해 주도되는 부차적 사건을 상세하게 부각하기란 어려웠을 것이다. 또한 작

가의 실제적 경험이 무지한 상태에서 세세한 서사를 만들어 내기란 수월치 않다는 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혈의누」의 김관일이나 「안의성」¹³⁾의 김상현, 박춘식의 유람은 무모하기까지 한 과도한 형태를 띠고 있다.

「안의성」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출분당해 결국 실성하기에 이른 여동생 박정애의 행방을 좇는 박춘식은 “(정애의)죽은 얼굴이나마 한번 만나보면 내가 죽어도 한이 없을 것이니, 화중난 김에 명산(名山) 구경삼아 사면팔방 유산객(遊山客) 노릇이나 하여보리라”고 다짐한다. 또 어머니와 아내 사이의 갈등이 아내의 출분이라는 과국을 부르고, 재혼을 종용하는 어머니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세계 유람을 선택한 「안의성」의 김상현의 유람은 무계획적인 희구라는 점에서 일맥상통한다. 최현주의 의견처럼 “어찌 보면 극히 충동적으로 제시된 듯해서 전체 서사와의 유기성을 상정하기가 어려운 이런 식의 유람은 유람에 대한 당대인들의 동경이 어느 정도로 강렬했는가를 역설적으로 반증한다.”¹⁴⁾ 고도 볼 수 있지만 이

13) 최찬식의 「안의성」 1912년 박문서관(博文書館) 출간. 줄거리는 아래와 같다.

법학도로서 반상차별을 철폐하고자 하는 김관서의 아들 상현은 광화문을 지나다 옛날 양반가문에서 생선장수로 몰락한 박춘식의 누이 박정애에게 반한다. 한편 상현의 모친은 옆집 여학생 정봉자를 며느리로 삼고자하나 상현의 반대로 무산된다. 상현은 모친에게 정애의 신분을 속이고 결혼하지만 계속된 영자(상현의 누이동생), 봉자의 모함을 당한다. 오빠를 만나는 정애를 외간남자와 사통하는 것으로 오인한 상현의 모친은 상현과 정애를 이혼시킨다. 친정으로 돌아온 정애는 남편 상현이 외국유람을 떠났다는 사실에 계속 웅얼거리는 신경병이 발생해 가출한다. 상현과의 결혼에 실패한 봉자는 영자와 함께 음란한 행실을 하다가 우연히 정애의 금반지를 훔쳐 전당잡힌 사실이 발각된다. 상현의 친구인 경찰서장 현국진에 의해 정애를 무고한 사실이 드러나 둘은 구속되고 상현의 모친은 정애를 찾아 가출한다. 정애와 상현, 그의 모친은 우연히 진주 축석루에서 재회하며 이로 인해 정애는 제정신으로 돌아온다. 상현이 대구지방 재판사서 주임으로 임명되고 출옥 후 간호부가 된 영자와 봉자는 우연한 기회에 죽을 지경에 이른 상현을 구해준다. 이로 인해 상현의 가족들은 재회하고 가출한 박춘식도 재회한다. 여러 사람의 권유로 영자는 현국진의 첩실이 되고 봉자는 상현의 첩실이 된다.

14) 최현주는 이를 “내부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외부에 대한 맹목적 동경이 상승작용을 반복하면서 유람은 탈출과 도피의 손쉬운 수단으로 선택되고, 나아가 지나친 ‘타자 선망’과 ‘자기부정’이 서구로 대변되는 외부 / 타자에 대해 터무니없는 미화와 이상화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최현주, 「신소설의 담론적 근대

는 동경이나 취미 차원을 벗어난, 모름지기 사내라면 당대의 새로운 문물을 익혀 계몽을 구현해야한다는 강박증적 증후가 신소설 내면에 작용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런 경위로 신소설에는 ‘자리를 비운 아버지/남성’¹⁵⁾모티브가 자주 발생한다. 『혈의누』에서 아버지 김관일은 부인과 옥련을 찾다가 무책임하게 떠나버리고 『은세계』의 최병도는 자신의 소신을 주장하다 처단 당한다. 물론 이런 경우는 가문이라는 위계 안에서 그 자녀들이 혈통을 공증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나 아버지의 부재 가운데 교육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한, 능력있는 여학생이 주요인물로 등장하는 소설에서는 그 혈통 증명의 결핍은 무엇으로 대체될 수 있을까.

그 예시로 최찬식의 『안의성』과 『능라도』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최찬식은 이인적이 대표하는 계몽성과 정론성에 대비되는 통속적 흥미 위주의 경향을 대표하는 작가로 특히 청춘남녀의 애정 문제 및 그와 관련된 윤리·도덕적 문제를 다루어 당대에 꽤 인기가 있었다고 평가된다.¹⁶⁾

『안의성』에서 오빠 박춘식의 보살핌으로 교육을 받은 여학생 박정애에게 아버지는 애초에 부재하기에 그 혈통을 증명할 길이 없다. 『능라도』¹⁷⁾

성, 『한국언어문학』 59, 2006, 487쪽.

15) ‘자리를 비운 아버지’라는 표현은 권보드래가 이미 사용한 바 있다. 이에 대한 내용은 권보드래, 『가족과 국가의 새로운 상상력-신소설의 여성 주인공을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제10집, 2001.12, 49쪽.

16) 권영민 외 2인 편, 『한국신소설선집』 7,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350쪽.

17) 1918년 조선서적에서 간행한 최찬식이 지은 신소설.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홍도영은 어린 시절 부모를 여의고 오빠 홍춘식과 살아간다. 홍춘식은 노동과 장사, 평양진위대 병정 등을 해가며 동생을 여학교에 보낸다. 어느 날 사냥을 하던 홍춘식은 능라도 버드나무 숲을 지나던 중, 남정린이 배다른 동생 남정룡에게 죽임을 당하기 직전에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한다. 홍춘식은 총으로 남정룡을 쏘고 남정린을 구해준다. 이 일로 남정린과 홍춘식은 둘도 없는 친구가 되고, 홍도영은 남정린과 장래 혼인할 것을 약속한다. 그러나 남정린의 서모(庶母)는 자신의 자식 남정룡의 죽음에 원한을 품고 살인사건을 일으켜 그 혐의가 남정린과 홍춘식에게 돌아가도록 한다. 남정린과 홍춘식은 한때 동경(東京)으로 피신하고, 홀로 남은 홍도영이 피를 내어 진범이 누구인가를 가려낸다.

동경으로 간 남정린은 홍도영이 자신을 배신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자살을 기도하

역시 오빠 홍춘식이 대리부모로 여동생 홍도영에게 신교육을 받게 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대리부모인 오빠들은 교육만이 대타자 시스템, 즉 가부장제에 대응할 수 있는, 신분제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오빠들은 자신의 혼사는 뒤로 미룬 채 대리부모로서 여동생을 보살피는데 집중하며 좋은 곳으로 시집보내는 것을 그 낙으로 삼는다. 그러나 풍속의 세계, 신분제도라는 운명론적 세계관에 익숙한 구세대인 부모세대와 혼약을 맺고 결혼이라는 제도에 잠입하는데 여성의 신식교육이란 별반 큰 장점이 되지 않는다. 가문을 증빙할 만한 ‘아버지’가 없다는 것은 혼사장애 요소가 될 뿐이다. 하물며 미천한 생선장수를 하며 착실하게 여동생을 교육시킨 오빠 춘식보다는 차라리 허랑방탕한 양반으로 자취를 알 수 없는 오빠가 혼인을 성사 시키기에 손쉬운 것이 된다. 그리하여 김상현의 지략으로 박정애의 오빠 박춘식은 있으나 없는 존재가 되어 이를 비밀로 서약하고, 김상현은 어머니의 동의를 얻어 결혼하는데 성공한다. 그러나 정애가 오빠 춘식을 몰래 만나는 장면은 정절에 대한 의심을 만드는데 근거로 작용하여 결국 박정애가 친정으로 내쳐지는 원인이 되고 만다.

중국에는 가부장제, 양반제도의 자장이 강렬한 현실에서는 교육을 받아 나뉠의 정체성을 확보한 현숙한 여성도 그 목소리를 뺏길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하는 것이다. 때문에 『안의성』에서 박정애의 출분이나 『능라도』의 홍도영의 길 떠남은 자신의 인정욕구를 채우기 위한 여정이 된다. 어머니와의 갈등을 해결한 후 다시 부르겠다던 남편 상현의 기약없는 약속, 오지 않는 편지를 기다리던 『안의성』의 박정애는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김상현이 급작스럽게 유람을 떠났다는 전언에 히스테리적 주체가 되어 길을 떠난다. 『능라도』의 홍도영 역시 사랑을 언약했던 남정린을 찾아

였으나, 기생 화자가 구해준다. 뒤이어 동경으로 남정린을 찾아가던 홍도영은 남정린에게 박대를 당하고 실성한다. 이때 나타난 홍춘식이 중간에 개입하여 남정린은 모든 사정을 자세히 알게 된다. 그 뒤 남정린은 홍도영과 화자 두 사람을 신부로 맞아 혼례식을 치르고 귀국해서 아담한 가정을 이루고 살게 된다.

동경을 향해 길을 떠나고 남정린의 기생 화자와 약혼을 언약한 것을 보고는 히스테리가 발생한다. 이는 가정을 잃고 망상에 걸리는 옥련모나 최 씨부인과는 분명 다른 지점의 광기이다.

히스테리는 19세기 가부장적 지배이데올로기의 규범에 의해 여성의 범주로 환원되는 질병이었다. 이는 19세기의 억압적인 시대적 배경과 관계된다. 변화하고 있는 사회에서 여성들의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해 남성중심 가부장 사회는 여성을 더욱 평가절하하면서 집안에 가두려고 했다. 남성이라는 ‘정상적인 성’에서 이탈한 비정상적이고 히스테리적인 존재로 여성을 규정하여 남성이 만들어 놓은 틀 안에 가두어 남성들의 우월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한 것이다. 결국 19세기 가부장적 지배이데올로기 사회에서 여성들의 육체와 성이 의학의 영역으로 편입되어 히스테리 존재로 ‘구성’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감금된’ 히스테리 여성은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고 가부장적 사회의 규범에 구멍을 내는 전략으로 히스테리적 주체화 과정을 선택한다. 이러한 과정은 19세기 가부장적 사회에 의해 수동적으로 ‘구성된’ 히스테리 여성의 무의식적 욕망과 수행성을 통한 능동적인 히스테리 주체화의 여정이라 할 수 있겠다.¹⁸⁾

자유연애를 통해 맺어진 『안의성』 김상현-박정애 커플과 『능라도』의 남정린-홍도영 커플은 모두 ‘서로를 인정하는 믿음’을 기반으로 결속된 짝패 관계이다. 그러나 그 연애가 실패로 돌아가자 박정애나 홍도영은 히스테리적 주체가 된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오해가 풀리고 짝패 대상을 되찾자 바로 그 히스테리가 해결된다는 것 역시 매우 흥미롭다. 보통 프로이드의 담론에서 대상애와 자기애는 남성성과 여성성으로 대별되어 운위된다. 짝패를 잃고도 계몽에 열중하기 위해 길을 떠나는 김상현이나 남정린은 계몽이란 관념에 대상애를 품은 강박증적 양상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이 등식은 설명될 수 있겠다. 그러나 박정애나 홍도영이 삼각관계에 있는 봉자나 기생 화자를 받아들이고 자매애를 발휘하는 해피엔드를 맞는

18) 김경희, 『히스테리 담론'들과 담론적 수행성』, 『여성연구논집』 제23집. 2013. 159-174쪽.

다는 것을 설명하기에는 당대의 계몽 이데올로기와 이율배반적이기에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이 등식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다른 가설이 필요하다.

이레가레이에 따르면 자기에는 모순을 이야기하는 존재로 기능한다. 대상을 안고 있는 박정애의 나르시즘은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와 달아 있지만 언제나 타자의 존재를 전제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부모없이 외롭게 자라난 박정애나 홍도영은 모두 외로운 존재들이다. 오빠라는 대리 부모로는 충족되지 않았던 애정 갈구를 짝패인 김상현과 남정린의 ‘인정’을 통해 해소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믿음에 흠결이 발생한 후 김상현은 유람을 통해 허랑하게 만나고 있는 세계와의 조우가 박정애를 대신 하였던 것이고 ‘김상현의 인정’에 대한 배신을 겪은 박정애는 본인의 소망 충족에 대해 읊조리는 히스테리적 주체가 되는 것이다. 때문에 박정애가 가장 사랑하고 있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이기에 자신을 궁지에 몰아 넣었던 봉자를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도 있는 관대함이 발생 가능한 것이다. 박정애는 허약한 자신의 내면을 직시하였기에 ‘옹얼거리는, 이야기하는’ 히스테리적 주체로 존재하며 그나마 정신이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는 「능라도」의 홍도영도 마찬가지이다. 「능라도」의 마지막 부분은 그야말로 해피엔드로 끝나는데 그것도 기생 화자와 남정린을 공유하는 자매애적인 결말은 다소 당황스럽기까지 하다. 시대적 계몽주의로 보자면 일부이첩이 되는 축첩 상황이며 가족주의로 봉합되는 야릇한 가족의 형태인 것 같지만 실상 여기서 여성인물 도영을 중심축으로 재구조화해 본다면 이 결말은 소원 성취담이 될 수 있다. 애초에 도영이 욕망했던 것은 자신의 시작(詩作) 능력을 찬탄했던 남정린의 ‘인정’일 뿐. ‘남정린’ 자체는 공허한 것이었다. 이 공허는 오해의 매커니즘, 소문의 틈바구니¹⁹⁾에서 배신이란 기제로 스토리텔링화 되어 자신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 되었으나 그 오해가 풀린 후 홍도영은 자신의 인정욕구를 채울 수 있었던 것이다. 때문에 일견 시대착오적인 이 개연성이 떨어지는 「능라도」도

19) 이는 「안의성」에서도 박정애가 봉자가 조작한 나쁜 소문에 의해 현숙한 아내의 자리에서 탈락된다는 점에서 소문의 매커니즘을 주목할 만하다.

영의 서사도 그 틈을 들여다보면 이 이야기는 재구성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자기애적인 지향은 반동인물인 기생 화자에게도 가능한 논리이다. 화자는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으로 남정린의 학업을 지지하며 그야말로 애정을 구입한 셈이다. 화자가 욕망했던 것은 남정린이란 존재 자체보다는 기생이란 신분제도의 한계 때문에 발생하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제어하는 일이었다. 그렇기에 남정린을 후원하며 후처로라도 다복한 가정의 꿈을 꾸었던 것이다. 또 홍도영의 갑작스런 출연에 대해서 당혹스러워 하긴 하지만 홍도영에게 적대적 존재로 기능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때문에 화자는 본디 꿈꾸던 자신의 위치지우기에 성공한 해피엔딩이 되는 셈이다. 기생 화자는 신분제도 가운데서는 누락된 여성이지만 능력(재화)으로 남정린의 학업을 도왔다. 「안의성」의 반동인물 봉자 역시도 자기애적인 성향으로 김상현을 갖기 위해 끊임없이 박정애를 괴롭히지만 법의 처단을 받고 개심하여 간호사가 된 후 김상현을 죽음의 위기에서 구해내는 데 능력을 발휘한다. 이렇듯 능력을 발휘하는 여성, 가부장의 위치를 공고히 하는데 도움을 준 여성인물이 가정 내로 수렴되어 해피엔드가 발생한다는 것 역시 기득권적 흔적이지만 뒤집어 본다면 이는 능력을 가진 여성들에 대한 미묘한 인식 변화의 수렴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듯 신소설은 남성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헌신하는 것을 마치 운명적인 것처럼 인식해 왔던 기존의 여성관에 새로운 인간의 모습을 발견하는데 일정부분 기능하였다고 볼 수 있다. 즉, 신소설은 당시 여성들에게 진보된 사상을 보여주고, 변화된 여성들의 삶을 투영한 것이라고 하겠다. 누구씨부인으로서 유교적 이데올로기 범주 안에 갇혀 집을 떠나지 못한 채 자학적인 광기로 한의 세월을 녹이는 「혈의누」, 옥련모나 「은세계」, 옥순모에서 한층 주도적이고 자기 인정욕구에 충실하게 길을 떠나는 교육받은 여성인 박정애나 홍도영의 히스테리는 여성인물의 광기의 다른 면모를 보여준다. 물론 이 소설에서 그 혼돈이 해소되는 결론이 남성인물과의 재회와 인정에 기반되어 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하지만 이 역

시 당대 사회가 가진 특징적 면모의 범주라 간주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여성을 남성에 대한 타자가 아닌 실존적인 인간으로 본다면, 광기로 규정된 그들의 행동을 결코 그들에게 내재되어 있는 동물성이 발현된 것으로만 규정할 수 없게 된다. 오히려 여성의 광기를 여성들을 억압하는 권력체제로부터 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보호하기 위해 행한 자기 방어적인 행동으로, 그리고 그러한 체제에 공격을 가하는 저항의 몸짓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된다. 더 나아가 여성의 광기는 여성 적대적인 가부장제 사회에서 자신의 존재가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과연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 해답을 구하는 여정이라 할 수 있겠다.

4. 신소설과 한국적 근대의 불협화음

신소설 속 여성의 분열, 광기에 주목하는 가운데 근대적인 의식의 발로라고 할 수 있는 신소설이 가진 새로움과 그 틈을 발견할 수 있었다. 가정을 완전무결한 질서와 안정의 장소로 이념화하려는 신소설의 클리셰인 민족주의적 계몽논리는 개인과 집단, 욕망과 명분, 삶의 실질과 이념적 당위가 충돌하는 가운데 결국은 개인의 내면을 억제하는 작용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신소설에 등장하는 여성인물들의 분열과 광기는 기실 신소설이 근대적 이념과 전근대적 현실 사이의 시대적 모순을 그 자체의 발생론적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게 해주는 것이다.

한국적 근대의 특수성을 규정짓는 또 다른 힘, 즉 근대적 변화라는 시대적 모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배적인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유교적 관념은 신소설 형성의 중요한 축이다. 이는 신소설은 ‘소설’이라는 점, 다시 말해 삶의 실질을 배제한 채 이념적 당위만을 강조하는 계몽적 구호와는 달리, 삶의 실질로부터 소설의 소재를 가져오거나 그와의 긴밀한 관련 속에서 쓰여질 수밖에 없는 소설 자체의 장르적 특성과 관계된다. 신소설에 부과된 계몽의 강박을 뚫고 올라오는 삶의 실질, 즉 신소설 속

여성인물들의 광기는 이러한 이념과 풍속, 혹은 체험과 관념, 욕망과 명분 사이의 괴리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불협화음들인 것이다. 더불어 누구 씨부인으로서 유교적 범주 안에 갇혀 집을 떠나지 못한 채 자학적인 광기로 한의 세월을 녹이는 「혈의누」, 옥련모나 「은세계」, 옥순모의 모습을 연민하는 그 딸들, 옥련과 옥순의 성장은 남성중심적 계몽주의에서 놓쳐 버린 내면적 사유를 보여주며 근대의 자장에서 또 다른 면모를 갖춘 계몽주체로 발현된다. 이는 교육받은 여학생들이 여전히 구시대 풍속에 젖어있는 가정서사의 갈등으로 들어왔을 때에는 그 이전 세대에 비해 한층 주도적으로 자기 인정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길을 떠나는 박정애나 홍도영의 히스테리로 변주되는 것이다. 이렇듯 여성의 분열과 광기는 여성 적대적인 가부장제 사회에서 과연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 해답을 구하는 여정의 기폭제로 발휘된다 할 수 있겠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이인직, 「혈의누」, 『한국신소설선집』 1, 권영민 외 2인 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_____, 「은세계」, 『한국신소설선집』 2, 권영민 외 2인 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최찬식, 「안의성」, 『한국신소설선집』 7, 권영민 외 2인 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_____, 「능라도」, 『한국 신소설전집』 5, 을유문화사, 1968.

2. 단행본

권영민, 『한국현대문학사』 1, 민음사, 2001, 41~182쪽.

김대숙, 『한국설화문학과 여성』, 월인, 2002, 114~283쪽.

3. 논문

- 권보드래, 「신소설의 성(性), 계급, 국가 -여성 주인공에 있어 젠더와 정치성의 문제」, 『여성문학연구』 20, 2008, 7-42쪽.
- 권보드래, 「가족과 국가의 새로운 상상력-신소설의 여성 주인공을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제10집, 2001-12, 27-49쪽.
- 권석만, 『현대 이상심리학』, 학지사, 2013, 355쪽-359쪽.
- 김경희, 「히스테리 담론‘들’과 담론적 수행성」, 『여성연구논집』 제23집, 2013. 159-174쪽.
- 김윤식, 「개화기소설의 문제점」, 『한국현대소설사연구』, 민음사, 1984. 23-63쪽.
- 박진영, 「1910년대 변안소설과 '실패한 연애'의 시대」, 『상허학보』 제15집, 2005. 273-302쪽.
- 박혜경, 「신소설에 나타난 이념과 풍속의 거리」, 『한국언어문학』 55, 2005, 375-392쪽.
- 최현주, 「신소설의 담론적 근대성」, 『한국언어문학』 59, 2006, 475-502쪽.

Abstract

Insanity of Female Characters in New Novel(Sinsoseol)

Seo, Yeon Ju

This study focuses on the dualistic structure and loopholes in Sinsoseol (Korean: literally "new novel") by focusing on insanity of female characters in Sinsoseol.

There are frequent journeys in Sinsoseol. A journey of male character is generally based on the premise of setting out to the modernity of enlightenment, but on the other hand it has a strong tendency of a profligate tour, with poor or no specific narratives. Main characters of Sinsoseol are female characters that lead the narrative of home and family inherent with the old-fashioned motives of filial duty and virtue.

The motif of journey by male characters that frequently appear in Sinsoseol is manifested as their obsession with enlightenment. In the directivity of Sinsoseol that ideologizes home as a place of absolutely perfect order and stability, female characters who returned home with their family destroyed tend to display symptoms of delusion. Korean writer Yi Injik who had political ambitions portrays male characters that resisted to the old political powers as rational and noble heroes in his works 『Tears of Blood (Hyeorui Nu)』 and 『Silver World (Eunsegye)』. On the other hand, he brings into the novels the insanity of female characters as internalized emotions that are in conflict with the periodical situation. The insanity (delusion) of mothers without language or

statement to express themselves resulted in another opportunity for their daughters (Okryeon, Oksoon) to be responsible for their academic achievement, which acts as an additional factor for women to make an appearance in the arena of modernization.

Moreover, Sinsoseol also played a certain role in discovering a new human aspect from the conventional view of women that had perceived unconditional devotion to men as fate. Choi Chansik's 『The Sound of a Wild Goose (Anuisung)』 and 『Rungrado』 portray female characters with a lowly status who obtains self-examination ability through new education get involved with a man through free love but end up running away due to family trouble and experiencing symptoms of hysteria. Seeing women as not the others from men but as existential human beings, this behavior defined as insanity cannot be explained merely as a manifestation of their inherent brutality. Rather, women's insanity can be interpreted as a self-defensive behavior to protect their identity from the suppressive power system, and a gesture of resistance that fights against such system. Furthermore, women's insanity may be the "superior spirit" that seeks answers to the questions of what their existence means and who they are in the patriarchal society that is hostile toward women.

Key words : Sinsoseol, Female Characters, Insanity, Delusion, Hysteria, Obsession, Identity

■ 본 논문은 2015년 3월 20일에 접수되어 2015년 3월 25일부터 4월 17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2015년 4월 21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